

소선 태자의 이방 체험으로 본 <육미당기>

정선희*

— <차 례> —

1. 19세기 동아시아의 구도와 이방(異邦) 넘나들기
2. 소선 태자의 이방 여정과 조력자 이방인들
 - 1) 중국 남해 보타산으로의 구약 여정
 - 2) 다양한 이방인들의 조력으로 황실 입성
 - 3) 3처 3첩과 성공적 귀향
3. 소선과 결연하는 이방 여인들의 특성과 의미
 - 1) 백운영 : 천정 인연의 호걸·신선 같은 여인
 - 2) 옥성공주 : 시와 음악으로 교감하는 여인
 - 3) 설서란 : 천명을 시현하는, 분신 같은 여인
4. 민족 자긍심 표출과 통과의례적 성격의 이방 체험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19세기 후반의 한문소설 <육미당기>에서는 이방(異邦) 중국이 주인공의 성숙과 성공을 가능케 하는 통과의례적인 공간, 주인공의 아내가 될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기능한다. 신라에서 중국, 중국에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는데, 중국 내에서도 남해의 보타산 → 항주 → 황성 → 화산 → 화음현 → 장안 → 황성 → 광동 → 형산 → 황성 등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남주인공 소선태자가 약(藥)을 구하러 고국 신라를 떠나 중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거주하면서 다양한 이방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특히 이방 여성들과 혼인하고 황실에 입성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대체로 이방인은 배척당하거나 희생되기 쉬운데,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보호받거나 인정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소선 태자는 시(詩)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신선 같은 풍모를 지녔으며 다소 소

* 목원대학교 국문과

극적인 성격으로 그려진다. 또한 그는 문(文)에 경도되어 있으며, 무(武)는 오히려 여성 특히 백운영이 남복(男服)을 한 채 담당하고 있다. 백운영뿐만 아니라 옥성공주, 설서란 등 세 부인이 각각 독특한 위상을 지니면서 소선과 만나고 결연하고 활약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백운영은 호걸·신선 같은 여인으로, 옥성공주는 태자와 시와 음악으로 교감하는 여인으로, 설서란은 천명(天命)을 시현하는, 태자의 분신 같은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소설사에서 이방 체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17세기의 한문소설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중국을 중심에 두고 오랑캐를 변방 또는 타자로 인식하거나, 우리나라를 작은 중국으로, 오랑캐를 타자로 인식하는 생각이 소설 작품에 반영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옥루몽>이나 <옥수기> 등 한문장편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들이 변방으로 오랑캐를 진압하러 가거나 사신으로 갔을 때에 그에 반하여 애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오랑캐 여성들이 존재한다. 그녀들은 중국의 남성들과 혼인하여 그 집안에 적응하여 잘 살아간다는 면에서 18세기의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의 양성공주와 비슷하기도 하다. 이런 이 민족 여성들은 <구운몽>의 심요연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남성 주인공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육미당기>는 이들 작품에서 중국을 중심에 놓고 오랑캐를 이방인으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중국인들과 중국 여성들을 이방인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방 여인들, 그것도 중국 본토 여인들이 우리나라의 남성에게 반하여 혼인하는 이야기를 우리 독자가 읽을 때에는 민족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문재(文才)와 음악성, 인품과 이해심 등에 감탄하는 중국인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돕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육미당기>의 이방인 인식은 국문장편소설들과도 다르다. 이들에서는 악녀들이 그 악행이 발각된 뒤 오랑캐 지역으로 축출되고 그 곳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주인공 남성에게 징치되는 등 오랑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차별적이다. 하지만 <육미당기>에서는 오랑캐 남성들을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선 태자를 돕는 인물로 그렸다. 또 남성 신라인이 중심, 여성 한족이 이방인이므로 이보다 더 낮은 계층인 오랑캐 여성을 또 하나의 이방인으로 설

정하는 것이 불필요했기에 오랑캐 여성과의 결연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작품은 <구운몽>이나 <옥루몽>에 비해 첩들의 비중이 적다. 아내 중에서도 백운영에게 서사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녀의 영웅적 면모와 도선적(道仙的) 분위기가 부각되어 있었다. 남주인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 즉 전공(戰功)을 세우거나 오랑캐의 행복을 받아내는 등의 활약을 하며, 심지어 적군에게 잡혀 있는 남주인공을 구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용맹함과 도술을 사용하는 면모 등은 다른 작품에서 대체로 이민족 여성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질이다. 심요연이나 일지련, 양성공주처럼 말이다. <육미당기>에서는 이 부분을 백운영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족 여성이 불필요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육미당기>의 이방인 서사는 작가 서유영이 세상에서의 결핍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어느 곳을 이상향으로 삼아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소외의식이나 관조적 자세는 남주인공의 소극적 성격과 문학적, 음악적 성향을 강화하기도 했다. 작가 자신의 소외감을 남주인공의 눈 멍과 이방인 처지 두 측면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소외감을 이방(異邦)에서의 성공적인 여정과 이방 여인들과의 진정 어린 사귀, 결연으로 위로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19세기, 육미당기, 이방인, 이방 체험, 중국, 구운몽, 옥루몽, 소외, 통과이레

1. 19세기 동아시아의 구도와 이방 넘나들기

17세기의 한문소설 <김영철전>, <최척전> 등에는 초국적(超國的) 유랑자가 초국적 공간을 표류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이야기가 주요 서사로 자리하고 있다.¹⁾ 조선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날과 같이 배타적인 국가 개념이 생성되기 전이

1)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36집, 2009.

었기에 상호 연대하는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²⁾ 19세기 중반의 한문소설 <육미당기(六美堂記)>³⁾에서도 이런 인식이 계승되지만, 17세기 소설들에서 현실적 질곡을 꺾진하게 묘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육미당기>에서는 ‘이방(異邦)’ 중국이 주인공의 성숙과 성공을 가능케 하는 통과(通過)의 공간, 주인공의 아내가 될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방인’ 중국인들은 조력자나 연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주인공 소선 태자의 이방 체험과, 이방 여성들과의 결연을 중심으로 읽음으로써, 소설이 이방 중국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육미당기>는 1863년에 서유영이라는 한미한 문사가 창작한 한문장편소설이다. 총 16회의 장회체(章回體)이고 20여 편의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으며, 국문소설 <적성의전>과 강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두 소설 모두 <선우태자전>을 근원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나 지향하는 바와 서술 방식, 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⁴⁾ 작자 서유영은 경화세족 문인들

2)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체험과 ‘이웃’의 기억 - <최척전> 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회연구』46집, 2010.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화사연구』44집, 2010.

3) 선본(善本)인 서울대도서관 가람문고 소장 한문본을 장효현이 역주한 <육미당기> (『한국고전문학전집』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를 대본으로 한다.

4) <적성의전>과 <육미당기>의 차이점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것들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적성의전>은 강남 안평국의 왕자 성의가 모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영주를 구하러 서역국으로 떠나지만, <육미당기>는 신라의 태자 소선이 부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영죽순을 구하러 중국 남해로 떠난다. 다음으로, <적성의전>에서는 성의가 중국의 공주 채란과 혼인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육미당기>에서는 중국의 공주를 비롯한 여섯 여인과 혼인한다. 또 <적성의전>에 비해 중국 황제가 소설과 공주와의 혼인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적성의전>은 성의의 효성과

과 교유하였고 야담을 채록하거나 소설을 다량 독서했으며 도(道)·불(佛)에 경도된 인물로 평가 받는다.⁵⁾ 그래서 <육미당기>에도 그의 불교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고, 예정된 질서가 선행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였다.⁶⁾ <구운몽>, <숙향전>, <삼한습유>, <옥루몽> 등과 유사한 면들이 보일 만큼 여러 작품의 영향을 토대로⁷⁾ 창작된 작품이다. 그는 또 중국을 여행하기를 바랐으나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그런 바람을 소설 속에서나마 실현해보고 싶었던 듯하다. 이 작품의 공간은 신라에서 중국으로, 다시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남해의 보타산 → 항주 → 황성 → 화산 → 화음현 → 장안 → 황성 → 광동 → 형산 → 황성 등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남주인공이 고국 신라를 떠나 여러 이방(異邦)을 여행하고 거주하면서 이방의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특히 이방 여성들과 혼인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출세도 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방인은 대체로 배척당하거나 희생되기 쉬운

영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육미당기>는 소설의 효성과 더불어 그의 문학적·음악적 재능과 여성들과의 만남과 혼인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두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시연, 『육미당기 연구-구성과 인물 중심으로』, 『성신어문학』5집, 1992.; 장주옥, 『육미당기 연구 - 적층적 소재원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11집, 2005. 등 참조.) 이렇게 주인공의 국적과 구약 여행지, 혼인하게 되는 이방 여인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육미당기>에서의 이방인, 이방 체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육미당기>에 집중할 것이다.

- 5) 장효현, 『서유영의 士 의식과 사상의 추이 - 시세계 연구의 일환』, 『어문논집』27집, 1987.
- 6)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4.
- 7) 심치열, 『육미당기 연구-<옥루몽>과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7, 1999, 132면.

데,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보호받거나 인정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인물은 복을 받고 왕위도 계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에 이러한 서사가 가능했겠지만, 이러한 권선징악적 인식 이외에도 이 작품에서 ‘이방’은 어떤 곳으로 인식되는지, ‘이방의 여성’은 어떤 인물로 인식되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소선 태자나 작자 서유영, 책을 읽는 조선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당나라 즉 중국은 이방이며 중국인들은 이방인들이므로, 소선을 중심으로 그가 이방을 여행한 경로와 이방인들을 만나 겪게 되는 일들, 이방 여인들과의 결연 양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2. 소선 태자의 이방 여정과 조력자 이방인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어떤 고소설보다 중국의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소선 태자가 부왕(父王)의 병을 치유할 약을 찾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생애를 그리는 가운데, 그가 거쳐 가는 중국의 지역들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1) 중국 남해 보타산으로의 구약(求藥) 여정

신라 소성왕의 태자인 소선은 10세에,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중국 남해(南海)의 보타산(普陀山) 자죽림(紫竹林)으로 가 천 년 된 영죽(靈竹)의 순(筍)을 구하게 되는데, 보타산은 육로로 수 만여 리, 수로로 7,8천여 리나 되며 파도가 세고 해적이 많아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묘사된다. 신라에서 출발하여 대략 수십 일을 가야 나오는 높은 산인데

주변의 파도가 거세고 절벽이 높이 솟아 있어 마치 무수한 갈날이 연이어 선 것 같은 곳⁸⁾이다. 특히 그 곳에 있는 암자 해운암(海雲庵) 주변은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마치 선계(仙界)와 같은 곳이며 송죽(松竹)이 푸르고 봉황과 학, 사슴 등이 꽃동산에 노니는仙境(仙境)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죽(紫竹) 수만 그루가 늘어서 있는데 이곳에서 영험한 효능을 지닌 죽순을 구한다. 죽순을 구하러 떠난 여행이었기에 서둘러 귀국하고자 하나 악한 형 세징의 방해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도인이 그의 앞일을 예언하기를, 중국에서 출장 입상(出將入相)하여 후왕(侯王)의 위치에 오르며 어진 배필도 둘 이상 얻을 것이라고 한다. 즉 그는 고국에서가 아니라 이국(異國)에서 출세하여 행복하게 살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듣고 마음이 산란하기는 했지만, 우선 아버지께 죽순을 드려야 하기에 고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중간에 만난 형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바다에 버리고 만다. 하지만 소선은 거북의 도움으로 죽림에 닿게 되어 앞으로 이 곳 이방(異邦)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월남과의 경계쪽에 있는 죽림에서 단소를 불고 있는데, 유구국(琉球國) 왕에 책봉되어 남쪽으로 사신 갔다 돌아오던 당나라의 예부상서 백중승이 단소 소리를 듣고 그를 구출하여 황성으로 데려간다.

그리하여 백 소부(小傅)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의 사연을 듣고 효성에 감탄한 소부가 황상께 아뢰어 본국으로의 귀환을 주선하겠다고 하

8) 대략 수십 일을 가니 문득 높은 봉우리가 푸르스름하니 우뚝 솟아 바다 물결 위로 보이는데, 배 가운데의 한 외국 사람이 손을 들어 가리켜 말하였다. “저것이 남해 보타산이다.” 소선이 크게 기뻐하며 배를 재촉하여 가다가 저녁 무렵 보타산 아래에 당도하니 어지러운 돌이 널려 있고 거센 파도가 해안을 때렸다. 바닷가에 푸른 절벽이 높이 솟아 늘어서 있는 것이 마치 무수한 갈날이 연이어 선 것 같았다. 서유영저, 장효현역, <육미당기>, 『한국고전문학전집』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28면. 현대역은 이 책을 참고하여 부분 수정함.

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은 부모님과 고향이 그리워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몸을 기울여 동쪽 땅을 바라봄이여,
 바다와 하늘이 넓고 길이 멀기만 하구나.
 어찌면 몸에 큰 날개를 얻어
 만 리를 높이 날아 고향에 돌아갈까?
 두 해나 혼정신성(昏定晨省)을 못하면서
 타지에서 객이 되어 헛되이 떠도는구나.
 슬프다, 내 노래여. 하늘이 듣지 못하시는가?
 통소를 붉이여, 슬프고 또 슬프구나.
 몸을 기울여 동쪽을 바라봄이여,
 집은 해가 돋는 동쪽 바다에 있는데 바다는 아득하구나.
 두 눈이 뚫을 한탄함이여,
 돌아갈 길이 없으니 마음을 애이는 것 같네.
 소식을 전하는 기러기가 오래도록 오지 않음이여,
 부모님 소식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슬프다, 내 노래여, 사람이 알지 못하는구나.
 통소를 붉이여, 슬프고 또 슬프구나.⁹⁾

이국에서 이방인들이 그를 아무리 잘 대해주어도 고향의 부모님이 그리운 것은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을 ‘바다 위에 갇힌 새 한 마리’라고 표현하면서 답답함을 한탄하는데, 이를 들은 소부의

9) 側身東望兮，海闊天長茫茫，安得身俱羽翰兮，高舉萬里歸故鄉，二載癡問寢兮，殊方爲客空流離，嗚呼我歌兮天不聞，吹洞簫兮悲復悲。側身東望兮，家在扶桑海漫漫，所嗟兩目俱癡兮，思歸未得揣心肝，鴻雁久不來，兩殿消息問何由，嗚呼我歌兮人不知，吹洞簫兮愁更愁。 <육미당기>, 51면.

딸 윤영이 그를 ‘날개 꺾인 봉황’이라면서 나중에는 하늘 높이 오를 것이라고 위로하는 시를 지어주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이렇게 소부와 윤영은 눈이 먼 채로 이방에서 떠돌아야만 하는 그의 신세를 불쌍해하며 그의 능력을 알아봐주었다. 그러나 모함을 받은 소부가 귀양을 가게 되자, 소선은 윤영과 혼인을 약조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부의 아내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소선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오면서 소부의 ‘지우(知遇)’에 고마워하고 감격해 하면서 허탈해 한다.¹⁰⁾ 이방인인 자신을 믿어 주고 보살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2) 다양한 이방인들의 조력으로 황실 입성

이제, 소선은 집을 나와 걸인 행색으로 단소를 붙여 다니다가 화산(華山) 아래의 절 보제사(普濟寺)의 도사를 만난다. 그는 형산(衡山)의 도인 장과(張果) 선생¹¹⁾인데, 소선의 상황을 알아보고는 섬서성(陝西省)의 화음현(華陰縣) 양류가(楊柳街)로 가라고 한다. 그 도사도 이방인 소선에 게 먹을 것을 주고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는 현 지인이라기보다는 선인(仙人)에 가까우므로 하늘의 뜻을 시험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도사의 인도로 화음현 이원(李園)으로 간 소선은 단소를 붙여 이모(李謨)라는 이의 청탄을 받고 함께 벼슬자리에 나아가자는 제안을 받는다.¹²⁾

10) 마침내 두 번 절하고 문을 나와 지팡이를 의지하여 천천히 가는데, 걸음이 불편한 데다 향할 곳을 알지 못했다.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니 백 소부의 지우를 입은 감격이 도리어 일장춘몽 같았다. <육미당기>, 75면.

11) 당(唐) 나라 때의 사람으로 항주(恒州) 조산(條山)에 은거했는데, 무후(武后)가 사신을 보내 그를 불러도 죽었다고 속이고 나가지 않았음.

12) 내가 들으니 황상께서 천보 연간에 이원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악적(樂籍)을 새롭게 하고 공봉(供奉)을 갖추게 한다고 하네. 나는 방금 강남에서 올

이렇게 하여 장안(長安)으로 가게 되니, 소선은 지금까지 신라→중국 남해→항주→황성→화산→화음현→장안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방 중국의 여러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온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소선 태자가 이방인이었으므로 서로 이방인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국(異國) 당(唐)나라의 서울 장안에 입성하게 된 태자는 봉래전에서 황상을 알현하고 단소를 붙어 호감을 사게 되고 옥성공주와 궁녀 설향도 만난다. 비록 태자와 공주는 서로에게 이방인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음악과 시, 문학, 서화(書畵)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공주가 시를 지으면 그에 차운하여 시를 짓는데 여기에서도 타향에서 사는 서글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난다. 이렇게 하여 둘은 지기(知己)가 된다.¹³⁾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어도 태자는 가을바람만 불어도 고국 생각에 눈물짓는다. 그러던 중 신라의 궁궐에 살던 기러기가 어머니 석 부인의 편지를 전해 주는데, 떠나온 지 4년쯤 된 시점이다. 그리움이 사무치던 차에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긴 편지의 내용을 들은 태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홀연 뜻밖에 두 눈이 뜨여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여 눈이 뜨였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태자는 이제 제3의 인생을 살게 된다. 어머니께 답신을 하고 나서 당나라의 과거 시험을 보아 장원에 급제하고 한림학사에 제수된다.

라와 예전에 노래 부르던 사람인 하감이라는 사람을 방문해서 벼슬에 나아갈 계책을 삼으려 하니, 젊은이도 나를 쫓아가겠는가? <육미당기>, 81면.

13) 그 후부터 공주가 더욱 후대하여 때때로 소선을 청하여 혹 문사(文史)를 담화하고, 혹 서화를 평론하여 문득 규합 중의 지기가 되었다. <육미당기>, 100면.

한편, 늑혼(勒婚)을 피해 자결을 시도했다가 강주(江州)로 가던 백 소저는 배득량이 보낸 하수인에게 겁탈 당할 위기에 놓이자 투강(投江)했다가 동정호 남쪽의 수월암으로 가 여관(女冠)의 도움을 받는다. 남복(男服)을 하고 이름도 운영에서 운경으로 바꾸고는 다시 강주로 떠나는데 도중에 또 도적을 만났다가 구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다. 결국 해운암에 도술을 배워 호걸, 신선 같은 사람으로 거듭난다. 죽장(竹杖)을 용(龍)으로 바꾸는 도술까지 써서 순간 이동을 하여 장안(長安)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소선 태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 운영은 태자를 알아보았으나 태자는 운영의 외모를 볼 수 없던 때에 그녀를 알았기에 지금은 남장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사해(四海) 안이 다 형제’¹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여 친구가 되기로 한다. 소선은 한림원에 들어간 후로 천자의 총애를 깊이 입어 몇 년 안 되어 예부상서 겸 한림학사가 되고 궁궐 후원에 지어준 당(堂)에 거처하고 있었는데¹⁵⁾, 운영도 그 옆의 서당(書堂)에 거하게 하면서 ‘고기가 물을 얻고 구름이 용을 좇음’과 같은 사귀음을 갖는다. 그러던 중 운영은 과거에 급제하고 ‘녹운각(綠雲閣)’이라는 경치 좋고 화려한 집을 하사받아 살게 된다.

천자가 꽃구경을 하면서 베푼 잔치에서는 차운시(次韻詩)를 지어 칭찬을 받는데, 양쪽 다 이방인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다. 신하인 소선은 임금의 오래사심을 축수하고 태평성대를 칭하하는 것을 자기 나라 임금께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며, 임금도 소선에게 금포(錦袍)·옥대(玉帶)를 상으로 내리며 총애하기를 마지않는다. 또한 한어사, 이학사 등

14) <육미당기>, 167면.

15) 상서가 한원에 들어간 후부터 천자의 총애가 날로 융성하고 커서 침전으로 불러 대하고 정무를 물으시되 그 경륜하는 바가 임금의 뜻에 맞았다. 천자가 상서의 도량 있음을 아시고 매우 애중하여 불과 수년에 은청광록대부 예부상서 겸 한림학사를 삼았다. <육미당기>, 168면.

동료 선비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며 마음을 나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사귄 것이다.

이렇게 소선 태자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 받지 않고 당나라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옥성공주와의 혼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니 부적절하다고 일단은 거부된다. 하지만 공주와 소선이 음악과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눈 사이임을 천자가 알게 되자 흔쾌히 허락한다. 혼인한 뒤 태자는 좌승상 낙랑공으로 제수 받고, 곧바로 토번을 정벌하러 가는데 양주 지경에서 장수 찬보에게 잡혀 냉옥에 갇힌다. 그러나 여릉공 윤경에게 받아들여 환약으로 기한(飢寒)을 면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토번인 괄충에게 구출되어 장안으로 돌아온다. 소선은 이방인이지만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였고 천자에게 인정받았으며 마침내 공주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기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이방인 괄충의 도움, 남장 여성인 윤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고국이 아닌 이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낙랑공 소선은 여릉공 백운경이 남긴 표문(表文)을 보고 그가 백소저였음을 알게 되어 오열한다. 그녀가 남해 밖 만여 리나 되는 곳인 해산(海山)으로 간 것을 알고 그 쪽 지역인 광동 지방의 도적을 평정하러 떠난다. 그 과정에서, 애주로 귀양 갔다가 강주를 거쳐 다시 황성으로 돌아오던 백소부와 만나기도 한다. 낙랑공이 광동을 다스린 지 1년 만에 도적이 없어지는 등 통치는 잘 했지만, 여릉공을 찾지 못해 상사병이 난다. 천자가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내자 다시 황성으로 오는데, 형산을 지나 축융봉 아래의 영소관과 삼청전 등 불가(佛家)의 기이한 경지들을 지나온다.

소선이 이렇게 이방 여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윤경은 다시 여복으로 바뀌어 입고 천자의 양녀(養女)가 되어 금성공주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리하

여 소선의 첫째 부인이 되고, 설소저는 그의 셋째 부인이 된다. 이제 소선 태자는 모국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3처 3첩을 두었으며 부마의 지위에서 행복하게 지내지만,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기러기를 소재로 시를 지으며 그 마음을 달랜다. 또한 동쪽 나라 신라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면서 옥피리 같은 신이한 물건 이야기도 아내에게 해주고, 통소와 거문고를 연주하면 검은 학들이 춤을 추었다는 두류산의 선인 옥보고나 백결 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해준다. 이방의 여인들에게 자국의 보물과 훌륭한 예인(藝人)들을 소개함으로써 자부심을 표출하는 것이다.

3) 3처 3첩과 성공적 귀향

얼마 후 천자와 황후, 백소부 등이 모두 죽고 왕이 바뀌어 순종 황제가 즉위하는데, 간신들의 희롱이 많아져 정국은 이부시랑 한유가 풍자시를 지을 정도가 된다. 이제 소선 태자도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바다 가운데의 죽림 섬을 다시 지나게 된다. 처음에 이곳을 지나다 죽은 일행들을 위해 제문을 지어 혼을 달래주고 신라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 그러나 신라 가까이에 가니 형 세징이 또 자객을 보내지만 예지력 있는 금성공주가 알아차리고 미리 처리한다. 세징의 악행이 드러나지만 소선이 대신 용서를 빌어 즉시 징치되지는 않는다. 왜가 침범하자 소선과 금성공주가 장보고 등 장수들과 함께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고 또다시 침범할 것을 알아채 매복시켜 승전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징의 악행이 드러나 감옥에 가고, 자책하고 뉘우치지만 두 눈이 붉은 천벌을 받는다. 이후에는 선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소선과 아내들은 10년 뒤에 다시 중국으로 인사하러 가는데, 여인들은 각각 고향으로 가 참배하며, 한 달 뒤에 다시 신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

정은 또다시 신라 → 중국 → 신라의 순환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에 태평한 세월을 50년 정도 보내고 태자에게 전위(傳位)한 뒤, 소선과 2처 2첩은 백학을 타고, 나머지 금성공주와 추앵은 청룡을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소선의 이방 여정은 신라 - 중국 남해(보타산) - 항주 - 장안 - 화산 - 화음현 - 장안 - 양주 - 장안 - 광동 - 형산 - 장안 - 남해 - 신라 - 장안 - 신라로 요약된다. 이렇게 이방의 여러 곳을 오가며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귀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소선과 결연하는 이방 여인들의 특성과 의미

이 작품은 <구운몽>, <옥루몽>에서와 같이 남주인공이 여러 여성들과 결연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주인공 소선 태자가 양소유나 양창곡처럼 호방하지는 않다. 소선은 시(詩), 음악(특히 통소)에 재능이 있고, 신선 같은 품모를 지녔으며 다소 소극적인 성격으로 그려진다. 또한 그는 문(文)에 경도되어 있으며, 무(武)는 오히려 여성 특히 백운영이 남복(男服)을 한 채 담당하고 있다. 백운영뿐만 아니라 옥성공주, 설서란 등 세 부인이 각각 독특한 위상을 지니면서 소선과 만나고 결연하고 활약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앞 장에서는 소선 태자의 이방 여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방(異邦)에 대한 인식,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있는데, 이 장에서는 소선 태자가 이방의 여인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고 혼인하고 활약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 여인들의 특성과 이러한 형상화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백운영 : 천정(天定) 인연의 호걸·신선 같은 여인

소선의 첫째부인이 되는 백운영은 태자소부이자 평장사, 예부상서인 백중승의 딸이다. 석부인과의 사이에 태음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며, 주(周) 영왕(靈王)의 태자 왕자진(王子晉)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몽조(夢兆)를 받았다. 그녀는 특히 시(詩)를 잘 지었는데 격이 높아 소선 태자와 비슷한 정도였다.

눈이 먼 채로 이역(異域) 중국에서 헤매고 있던 소선을 구해온 백상서는 소선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딸 운영과 혼인을 약정한다. 하지만 어머니 석부인은 소선을 못마땅해 하던 중, 배연령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득량과 운영을 혼인시키려 한다. 소저의 외삼촌 석시랑을 동원하여 청혼했으나 두 번 거절했더니 공부시랑 황보 박을 사주하여 백승상이 변방 오랑캐와 모의했다고 모해한다. 그리하여 승상은 애주(厓州) 참군으로 압송되고 만다. 이에 태자와 소저는 ‘부용헌’ 시를 주고받으며 쓸쓸해 하는데 이 시는 참언(讖言)의 성격이 있어 주목된다. 태자의 시 오언절구 두 수이다.

바다 위에 갇힌 새 한 마리가
와서 백옥당에 깃들었도다.
공이 거두어 돌보이준 뜻에 감격하여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일을 폐하여 두고
이미 도외(度外)의 몸이 되었도다.
봉루의 달 밝은 밤에
통소를 부는 내 모습 부끄럽도다.¹⁶⁾

16) 海上一羈鳥，來棲白玉堂。感公收養意，永世願無忘。廢置人間事，已成度外身。鳳樓明月夜，羞作弄簫人。 <육미당기> 55면.

소선 태자는 자신의 신세를 ‘바다에 갇힌 새’로 비유하면서 통소를 불러 소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끄러워한다. 백상서가 자신을 거두어준 것에 고마워하면서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상황을 한탄한다. 그러자 운영 소저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와
깃들인 바,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차탄하지 마라.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節操)여,
바람·서리의 침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¹⁷⁾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는 태자에게 날개 꺾임을 차탄하지 말라면서 끝내는 하늘 높이 오를 것이라고 격려한다.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마음을 지녀 추운 겨울도 버티면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랑스럽다면서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소선 태자의 앞날이 좋아질 것임을 예견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각자가 쓴 절구 두 수씩을 바꿔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물(信物)로 삼기로 한다. 예지력 있는 백 소부는 소선의 액운이 아직도 몇 년 남았다면서, 자신의 사위로 있으면서 재액(災厄)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나 백 소부가 모함을 받아 귀양 가게 되자 석부인은 그를 박대한다. 태자에게는 이방 여인인 운영 소저가 서로

17) 鳳鳥出丹岫，所棲非碧梧。莫嗟摧羽翼，終見上天衢。鬱鬱高松質，青青孤竹心。愛茲歲暮操，不受風霜侵。 <육미당기> 56면.

나라가 다름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 같은 사이였지만, 소저의 어머니에게 태자는 눈 먼 이방인에 불과했기에 배척했던 것이다.

이후, 석부인이 운영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배승상의 폐백을 받으니 운영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결을 시도한다. 이에 폐백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억지로 혼인하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와 강주(江州) 고향 집으로 떠난다. 그런데 배승상의 아들 배득량이 수십 인의 심복을 보내 그녀를 겁취하려 하자 시비와 함께 심양강에 투강한다. 목판을 잡고 살아나 동정호 남쪽 수월암의 여승 운서에게 구출되어 남복(男服)을 입고 다시 강주로 간다. 이제부터는 남자 백운경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도적을 만났다가 항주 자사 설현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설공은 운경의 아버지 백소부와 절친한 친구였기에 그를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애주로 떠나고, 남해 근처에서 꿈에 도인의 계시를 받아 보타산 해운암으로 가게 된다. 그 곳에서 도(道)에 관한 책 세 권을 숙독하여 신이한 기술을 익히고 선가(仙家)의 수련법을 단련하여 ‘여중호걸, 신선’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그 후 장안(長安)으로 가서, 예부상서가 된 소선과 3년 만에 재회하는데, 운경은 그를 알지만 소선은 그녀와 헤어진 후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둘은 대화가 잘 통하여 여러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길게 나누는데 그 중 하나가 장수(將帥)가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한 것이다. 장수에게 있어야 할 다섯 가지 재주와 열 가지 허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요즘의 장수들은 이러한 재주가 없다며 바람직 한 장수의 도리를 역설한다.

이렇듯 그와 마음이 잘 맞아 궁궐에 숙소를 마련해 주어 살게 하는데, 곧바로 운경도 과거를 보아 장원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운경은 소

선과 시를 화답하기도 하고 황제와 시를 창화(唱和)하기도 하는 등 뛰어난 문재(文才)를 보인다. 황제 앞에서 시를 천여 수 짓기도 하여 사위삼고 싶다는 말을 듣지만, 황제가 옥선 공주와 소선의 사연을 알게 된 후에는 소선을 부마로 삼기로 하기는 한다. 운경은 또 정복대원수 겸 병부상서로 제수되어 토번(吐蕃)으로 떠났던 소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그를 구해온다. 토번 장수 찬보를 이기고 회홀(回紇)의 왕에게서 항복을 받아냈으니 여장군형 여성 인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선이 그가 여자임을 의심하자 피하기 시작하며, 소선이 공주와 혼인하자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 은둔하려 한다. 시비 추향이 말려 가지는 않지만 황상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그의 글을 읽은 황상이 긴 답글을 보내고 그녀를 의녀(義女)로 삼아 소선과 혼인하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운경은 편지와 환약을 남기고 강주 고향집으로 가 어머니와 7년 만에 재회하며, 신행법(神行法)을 써서 애주로 가 아버지와의 재회한다. 계속 남북하겠다는 그녀의 의사를 부모도 존중하여 그렇게 생활하는데, 귀비 꺾씨가 시녀들과 결탁하여 황후를 모해하여 황후가 냉궁에 갇히는 무고(巫蠱)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타산에서 궁으로 돌아와 일을 해결한다. 보타산 해운암에서 천서(天書)를 읽으며 학문을 쌓고 신선 같은 생활을 하며 환혼단(還魂丹)을 만들기도 하다가, 궁의 소식을 듣고 죽장을 청룡으로 만들어 타고 온 것이다. 그리하여 황후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사병으로 이미 맥이 끊어진 낙랑 왕에게 단지(丹脂)하여 피를 먹여 살리고 환혼단을 먹여 깨어나게 한다.

이제 운경은 지난 5~6년 간 황각의 재상, 원수 노릇한 것 등 인간세상의 득실(得失)과 영욕(榮辱)이 모두 허망하다면서 여인의 옷으로 개착하고 천자의 양녀가 된다. 옥성공주의 언니로 서열이 정해지고 금성공주라

는 이름을 받아 부마의 첫째 부인이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는 미모와 학문, 도술까지 두루 갖춘 여성이며 신선 같은 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옥성공주 : 시와 음악으로 교감하는 여인

중국 황제의 딸 옥성(玉星) 공주는 예뻐 뿐만 아니라 총명하여 시서(詩書)와 문(文)을 잘 기억하며, 특별히 음률에 정통하여 통소를 잘 분다¹⁸⁾는 점이 태자와 같다. 그래서 들은 통소의 역사와 그 소리에 대한 감회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시(詩)에 대한 생각도 나눈다. 한 명이 시를 지으면 다른 한 명이 차운해서 짓기도 하는데, 매화를 소재로 한 시에서는 태자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게 묻어난다. 이국(異國) 여인이지만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신뢰하게 되고 끝내는 ‘지기(知己)’가 될 수 있었다.¹⁹⁾

그녀의 시녀인 궁녀 설향도 여염 딸로서 총명하고 영리한 여성인데, 태자와 공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기도 하고 황제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기도 하여 혼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또한 태자가 셋째 부인을 얻고 난 뒤에는 그녀를 비롯한 시녀 3인을 첩으로 들이게 된다.

이렇듯 이국의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기는 하지만 태자의 향수(鄉愁)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고향 그리워하는 나그네나 간

18) 이 때에 천자가 공주를 하나 두었는데 이름은 요화(瑤華)이고 호는 옥성(玉星) 공주였다. 황후가 꿈에 천요성(天瑤星)을 삼키고 낳았기에 이렇게 이름 붙였다. 나이 13세에 꽃이 시들고 달이 부끄러워할 만한 자태와 물고기가 가라앉고 기러기가 떨어질 만한 미모를 지녔다. 또 천성이 총명하여 시서와 제자백가의 문장을 한 번 보면 다시 잊지 않았고, 음률에 정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통소를 잘 불어 배우지 않고도 미묘함을 다하였다. <육미당기> 85면.

19) <육미당기> 100면.

힌 새의 마음 같은 비통함을 느끼곤 한다.²⁰⁾ 그러나 황제의 딸인 옥성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부마라는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극적으로 눈도 다시 뜨게 되어 과거도 보고 한림학사도 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단아하고 지적이며 시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여성으로 태자의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면서 교감을 나누고 신분도 상승하게 해준 여성이 바로 옥성공주이다.

3) 설서란 : 천명(天命)을 시현하는, 분신 같은 여인

설서란은 백운영이 남복(男服)하고 운경으로 살 때에 만났던 설공의 딸로, 운경과 정혼했지만 그가 애주(厓州)로 가서 소식이 없자 병이 난다. 설공 또한 이들을 걱정하여 병이 심해져 죽고 그 아내 소부인도 죽는다. 설소저는 이렇게 부모가 일찍 죽고 나서 갖은 고생을 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선인(善人)을 돕는 천명(天命)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다.

떠나버린 운경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그에게서 편지 한 장 없자 실망하고 있던 차에, 집에 불이 나 타버리고 이웃집 노파 전씨에게 의탁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 황성의 선화방으로 가려고 시비(侍婢) 춘앵과 함께 남복(男服)을 입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성품이 악한 왕 노파를 만나게 되어 청루(靑樓)로 넘겨지는데 다행히 지혜를 발휘하여 도망 나와 너씨 노파의 집에 머문다. 그런데 여기서도 노파의 아들이 그녀를 겁탈하려 하여 또다시 도망가는데, 지치고

20) 부마가 큰 그릇으로 거둬 마시고 시아에게 말하였다. “내 마음이 울적하니 너는 빨리 취미궁에 가서 내 단소를 가져와라.” 시아가 명을 받들고 가더니 조금 후에 단소를 가져오니, 부마가 슬피 홀로 난간을 의지하여 한 곡조를 불었다. 그 소리가 비통하고 감개하여 나그네가 고향을 떠난 듯, 갇힌 새가 옛 숲을 그리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녀이 나가고 간장이 끊어지게 해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육미당기> 232면.

상처 받은 소저가 울며 기절하자 춘앵이 수족(手足)을 주물러 살려낸다. 석벽에 소저와 시비는 물에 떨어져 죽는다고 써놓아 더 이상 찾지 않도록 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잠시 기절해 있던 중 소저는 선계(仙界)를 보고, 보타산의 태허 노인의 부탁을 받은 여승의 안내로 청련암에 가서 묘정 스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녀는 특히 서화(書畵)에 능하기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 팔아서 그 절에 사례를 한 뒤 노자를 마련하여 또다시 남북을 하고 장안으로 향한다. 하지만 황성 근처 도회지인 회주 경계에서 못된 소년들을 만나 또 한 번 곤욕을 치른다. 이시랑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녀가 가는 길엔 늘 이렇게 고난이 가로막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백 운경이 실은 여자였음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중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후 종남산 옥천암으로 가 정진이라는 여승을 만나고 선방(禪房)에서 시를 지으며 지낸다.

그러던 중, 이미 부마가 된 소선 태자가 이 절에 와 머물다가 그녀의 시(詩)에 차운하여 읊조리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갔는데 그의 글 솜씨와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소저가 아직 남장을 하고 있는 상태기에 남자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도 눈에 밝혀 열흘 뒤에 다시 그 절을 찾는다. 그런데 그 찰라 여승(女僧) 혜원의 오빠가 소저를 겁탈하려는 것을 구하여 환약으로 깨어나게 한 뒤 취미궁으로 데려가 경사(經史)에 관해 담화를 나누며 지낸다.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금성공주(백운영)가 그녀에게 여인의 옷을 전해주어 다시 여자로 살게 된다.

이렇게 갖은 고난을 겪은 설 소저는 부마의 셋째 부인이 되는데, 그녀의 이러한 고난들은 늘 주변인들이 도와 이겨낼 수 있었으며 특히 여승이 돕는 경우가 많아 이 작품의 불교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태자와 비슷한 운명을 지닌 여성이 태자와 마찬가지로 그 고난들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선한 사람은 하늘이 도우며 끝내는 복을 받는다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었다.

4. 민족 자긍심 표출과 통과의례적 성격의 이방 체험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이방(異邦) 체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17세기의 한문소설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오랑캐를 변방 또는 타자로 인식하거나 우리나라를 작은 중국으로, 오랑캐를 타자로 인식하는 생각이 소설 작품에도 반영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옥루몽>이나 <옥수기> 등 한문장편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들이 변방으로 오랑캐를 진압하러 가거나 사신으로 갔을 때에 그에 반하여 애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오랑캐 여성들이 존재한다. <옥루몽>에서 양창곡을 흠모하여 중국으로 따라간 남만 공주 일지련, <옥수기>에서 가유겸과 혼인하겠다고 따라간 호족 백룡공주 등을 들 수 있다. 그녀들은 또 중국의 남성들과 혼인하여 그 집안에 적응하여 잘 살아간다는 면에서 18세기의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의 양성공주와 비슷한 면이 있다. 양성공주도 명나라를 침범하려는 복원 땅에 파견된 소경문에게 반하여 소씨 집안으로 시집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이민족 여성들은 <구운몽>의 토번 여인 심요연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남성 주인공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옥미당기>는 이들 작품에서 중국을 중심에 놓고 오랑캐를 이방인으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중국인들과 중국 여성들을 이방인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은 점이 특별하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즉 신라인 소선 태자가 중국으로 가서 겪은 이방 체험이기에 그의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이방인이고,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방 여인들, 그것도 중국 본토인 당나라 여인들이 우리나라의 남성에게 반하여 혼인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민족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문재(文才)와 음악성, 인품과 이해심 등에 감탄하는 중국인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돕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는 대체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고는 하지만²¹⁾, 그 안의 모든 서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초월적으로 해결한다든지 현실에서 도피하여 이상향을 찾는다든 면에서 이러한 신라인의 자존감을 작가의 현실의식과 직접 연결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

<육미당기>의 이러한 면은 국문장편소설들에서 악녀들이 그 악행이 발각된 뒤 오랑캐 지역으로 축출되고 그 곳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주인공 남성에게 징치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조씨삼대록>의 악녀 천화군주가 쫓겨난 다음 오랑캐 왕비가 되었다가 정벌하러 나간 조운현에게 베이고, <쌍성봉효록>의 교씨도 마지막에 오랑캐 왕비가 된다. 이러한 서사는 당시 사람들이 오랑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차별적이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육미당기>에서는 오랑캐 남성들을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선 태자를 돕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오랑캐 여성과의 만남이나 결연은 아예 시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성이 중국인이 아니라 신라인이기 때문에 여성은 중국 한족인 경우만 들고 있는 듯하다. 남성 신라인이 중심, 여성 한족이 이방인이므로 이보다 더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랑캐 여성을 또

21) 김종철, 앞의 논문, 100면.

하나의 이방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육미당기>는 <구운몽>이나 <옥루몽>에 비해 첩들의 비중이 적다. 아내 중에서도 백운영에게 서사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녀의 영웅적 면모와 도선적(道仙的) 분위기가 부각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작품 같으면 남주인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 즉 전공(戰功)을 세우거나 오랑캐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의 활약을 하며, 심지어 적군에게 잡혀 있는 남주인공을 구해내기까지 했다. 또한 신행법 등 도술을 써서 자유자재로 이동하기도 하고 물건을 변하게 하기도 하는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용맹함과 도술을 사용하는 면모 등은 다른 작품에서 대체로 이민족 여성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질이다. 심요연이나 일지련, 양성공주 등처럼 말이다. <육미당기>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부인인 백운영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족 여성이 불필요했던 것이기도 하다. 또한 <옥루몽>의 벽성선의 모습은 옥성공주의 음악성과 설서란의 고난상으로 분리되어 계승²²⁾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인물들이 도선적 이상향이면서 불가적 성격도 띠는 해운암에서 재탄생하여 세속의 고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힘과 이념을 재충전 받는다는 점이다. 해운암은 또한 소선태자와 여인들이 모두 거치는 곳이기에 서술자 또는 작가의 초월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²³⁾ 이러한 설정은 안동 김씨의 벌 열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려 했던 작가 서유영이 익종(翼宗) 사망 이후에 과거를 포기하고 세상을 관조하게 된 내력²⁴⁾과 맞닿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에서의 결핍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22) 심치열, 앞의 논문. 155~158면.

23) 이강옥, 앞의 논문, 156면.

24)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9~69면.

어느 곳을 이상향으로 삼아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의식이나 관조적 자세는 남주인공의 소극적 성격과 문학적, 음악적 성향을 강화하기도 했다. 작가 자신의 소외감을 남주인공의 눈 멍과 이방인 처지 두 측면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소외감을 이방(異邦)에서의 성공적인 여정과 이방 여인들과의 진정 어린 사귄, 결연으로 위로 받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서유영 저,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한국고전문학전집』1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시연, 『육미당기 연구-구성과 인물을 중심으로』, 『성신어문학』5집, 1992. 95~128면.
-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영웅소설의 한 양상』, 『한국학보』40집, 1985. 88~108면.
- 심치열, 『육미당기 연구-〈옥루몽〉과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7, 1999. 131~174면.
- 심치열, 『〈육미당기〉의 문화론적 의미 연구』, 『돈암어문학』15집, 2002. 69~98면.
- 이강욱, 『구운몽과 육미당기에 나타난 세속적 삶의 두 모습과 그것의 극복 방식』, 『국문학연구』2집, 1998. 115~168면.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4. 145~162면.
- 이병직, 『〈육미당기〉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34집, 1997. 101~123면.
- 이정원, 『15세기 불교계 국문서사 연구』, 『한국고전연구』5집, 1999. 329~351면.
- 장주옥, 『육미당기 연구-적층적 소재원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11집, 2005. 219~256면.

-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9~69면.
- 장효현, 『서유영의 士 의식과 사상의 추이-시세계 연구의 일환』, 『어문논집』27집. 1987. 403~423면.
- 정환국, 『전근대 동아시아와 전란, 그리고 변경인』, 『민족문화사연구』44집, 2010. 27~51면.
- 조춘호, 『육미당기 연구 1-작중인물의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16집, 1984. 63~96면.
- 조춘호, 『육미당기의 작자와 창작배경』, 『문학과 언어』6집, 1985. 103~122면.
-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체험과 ‘이웃’의 기억 - <최척전> 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46집, 2010. 12. 129~161면.
- 최경환, 『조선후기 소설론의 문화기호론적 연구 1 - <육미당기> 서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2집. 1996. 320~345면.
-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36집. 2009. 189~224면.

ABSTRACT

The Experience of a Foreign Land and
a Foreign Existence Depicted in the Novel *Yukmidanggi*

Jeung, Sun-Hee

Written in the mid-19th century, *Yukmidanggi* presents the foreign land of China as a place for a rite of passage that enables the protagonist to grow into a mature and successful man. It is also a place that ensures freedom for the women whom he meets and marries throughout his journey. The story's setting changes from the Silla Dynasty to China and back to Silla in the end.

Unlike most classical Korean novels, in which foreigners are ostracized or sacrificed, this story is special in that it portrays the protagonist's foreign existence as a cause for him to be protected, accepted and assisted to recover his self-reliance. The logic of this narrative reflects an idea that must have been prevalent among the people of the time: that a nice person who is earnestly devoted to his parents is bound to be fortunate and that even a throne can be bestowed to such a person.

The protagonist's blindness and foreign existence seem to express the author's own feeling of alienation, which is soothed in the story by the protagonist's successful journey through the foreign land and his sincere courtship and union with the women from the country.

Key Words *Yukmidanggi*, Silla, China, foreigner, foreign existence, the author's own feeling of alienation

논문투고일 : 2012. 04. 19

심사완료일 : 2012. 06. 06

게재확정일 : 2012. 06. 06

